

유승철, KIA 마운드 '신상' 으로 우뚝

지난 6일 LG전 4이닝 무실점 완벽투구...데뷔 첫 세이브 수확
필승조 투입 자질 보여줘...개막 엔트리 진입 후 2군행 '全無'



KIA의 영건 유승철이 신상품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유승철은 지난 6일 LG 트윈스와 경기장에서 자신의 진가를 마음껏 드러냈다. 5이닝 4실점으로 물러난 선발투수 임기영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올랐다. 4이닝을 단 2안타만 내주고 3탈삼진을 곁들여 무실점의 완벽투구로 13-4 대승을 이끌었다.

자신의 데뷔 첫 세이브를 따내며 KIA의 역사를 썼다. 바로 1000 세이브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는 필승조는 아니다. 뒤집 때 추격 조 혹은 크게 앞섰을 때 상대의 추격을 저지하는 역할이다. 이날은 최다인양인 4이닝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필승조로 던질 수 있다는 지질을 보여주었다. 51개의 볼을 던졌다. 흥미로운 대목은 42개의 직구를 던졌다. 최고구속은 149km를 찍었다. 직구 자체가 워낙 힘이 좋아 LG 타자들의 방망이가 밀렸다. 볼을 놓는 타점이 높은 데다 볼을 숨기고 던지는 투구폼이 위력을 발휘했다.

이날의 황금세이브를 앞세워 25 경기에서 1승1세이브1홀드,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올해 데뷔한 고졸 2년차 투수의 성적으로는 우등생이다. 개막 엔트리에 진입해 한번도 2군에 내려가지 않고 있다. 구위 뿐만 아니라 마운드에서 두둑한 배경과 승부 근성이 더욱 돋보인다. 약점이었던 제구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유승철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KIA 불펜도 갈수록 안정감이 생기고 있다.

소방수 윤석민이 가세한데다 유승철까지 든든한 통맨으로 제몫을 해주면서 탄탄한 불펜야구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이날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투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승철의 무공무진한 잠재력이 KIA 마운드를 살찌우고 있다.

유승철은 "프로데뷔 이후 가장 긴 이닝을 던져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이 좋다. 팀이 1000세이브를 하는데 내 기록을 남겨 신기하고 영광이다. 예전과 다른 점은 팔 위주로 투구를 하더니 금방 지쳤다. 오늘은 3이닝 이상 던지면서 느낌이 달랐다. 허리를 이용하는 중심 이동이 받쳐주어 자신감을 갖고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홀드를 기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리버풀에 추천했다”

인천 안데르센 감독, 노르웨이 언론 인터뷰서 밝혀

프로축구 K리그 인천 유니티드 사령탑에 오른 예르 안데르센 감독이 리버풀 위르겐 클로프 감독에게 조현우(대구 FC)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안데르센 감독은 최근 노르웨이 매체 다그블라테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클로프 감독에게 조현우를 특별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며 “클로프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현우의 활약을 자세히 관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데르센 감독은 독일 분데스리가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함께 뛰었던 클로프 감독과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북한 대표팀을 맡았던 안데르센 감독은 계약 첫 해 A매치에서 6승1무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동아시아컵 본선 진출권을 따

내는 등 북한 축구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데르센 감독은 “클로프 감독은 과거에 내 조언을 경청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데르센 감독은 “조현우를 영입한다면 리버풀로서는 훌륭한 선택”이라며 “클로프 감독은 로리스 카리우스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월드컵이 끝난 뒤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데르센 감독은 “조현우는 월드컵 3경기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리버풀은 현재 안 오블라크(이탈리아 레티코 미드필드), 알리송 베커(AS 로마) 등 주요 클럽 골키퍼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스

브라질 · 독일 · 아르헨티나 사라졌다...월드컵 역사상 처음

앞선 20차례 대회 중 11번 우승컵 나눠 가져

축구 강국들의 수난이다.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가 대진표에서 자취를 감췄다.

브라질은 7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8강전에서 1-2로 패했다.

전반 13분 만에 페르난지뉴의 자책골로 불안한 출발을 보인 브라질은 전반 31분 케빈 더 브라운너(이상 맨체스터 시티)에게 썬기골을 내줬다.

후반 31분 헤나투 아우구스투(베이징 귀안)의 헤딩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막판 공세가 무산되면서 고개를 숙였다.

우승후보들의 조기 탈락이 처음은 아니다. 독일은 한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해 일찌감치 자취를 감췄고, 리오넬 메시(FC바르

셀로나)가 버틴 아르헨티나는 16강에서 짐을 썼다.

브라질마저 8강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월드컵 역사가 새롭게 쓰였다.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가 모두 4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월드컵이 시작된 1930년 이후 처음이다.

앞선 20차례 대회 중 11번(브라질 5회, 독일 4회, 아르헨티나 2회)이나 우승컵을 나눠 가져온 이들은 러시아에서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이들 모두 카잔에서 탈락이 확정됐다.

2번 이상 우승을 한 국가들이 4강에 한 팀도 진출하지 못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4강 진출국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 중 우승 경력을 갖춘 팀은 프랑스와 잉글랜드 뿐이다.

뉴스스



두산 김재환, 통산 3번째 6월 MVP

KBO(총재 정운찬)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이 공동 시상하는 2018 신한은행 미야카 KBO 리그 6월 MVP에 두산 베어스 김재환이 선정됐다.

김재환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BOL(볼)'에서 진행된 팬 투표를 각각 50%의 비율로 합산한 결과 총점 51.49점으로 32.95점을 얻은 두산 세스 후랭코프를 제치고 개인통산 3번째 KBO 월간 MVP에 선정됐다.

이번 MVP는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가 갈려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김재환은 기자단 투표 30표 중 12표(40%)를 획득해 16표(53.3%)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산 후랭코프에 뒤처졌지만, 팬 투표에서 4만9667표로 전체 투표수(7만8863표)의 63%에 달하는 지지를 받아 총점에서 앞섰다.

김재환은 6월 한 달간 총 26경기에 출장해 107타수 46안타, 14홈런, 36타점, 타율 0.430, 출루율 0.470, 장타율 0.879 등 무려 타격 6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6월 1일 광주 KIA전부터 6월 8일 잠실 NC전까지 7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KBO 리그 역대 최다인 롯데 이대호의 9경기 연속 홈



런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한 삼성 이승엽(1999년 5월, 2003년 5월)과 KIA 김상현(2009년 8월)이 기록한 월간 최다 홈런인 15홈런에 하나 부족한 14홈런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장타력을 뽐냈다.

KBO 리그 6월 MVP로 선정된 김재환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주어지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김재환의 출신교인 상인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할릴호지치와 접촉”

직전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

일본 축구대표팀을 이끌며 국내 축구팬들에게도 친숙해진 바히드 할릴호지치(68) 감독이 한국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알제리 언론 DX넷은 7일(한국시간) 대한축구협회가 할릴호지치에게 감독 직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신태용 감독을 대신할 새 사령탑을 찾고 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이미 아시아에서 좋은 경력을 했다. 한국에 무척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등을 거친 할릴호지치 감독은 2015년 3월부터 일본을 이끌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대회를 2개월 앞둔 지난 4월 전격 경질됐다. 자신만의 색깔을 일본 축구에 입히려 노력했으나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 채 중도 퇴진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알제리 대표팀을 지

휘한 할릴호지치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흥행보진 감독의 한국을 4-2로 완파했다. 한국은 알제리를 1승 제물로 노리고 대회에 임했지만 상대의 맹공에 수수무책으로 당했다. 알제리전 패배로 한국은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할릴호지치 감독은 일본 대표팀 시절인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안경에서 한국에 1-4로 졌다. 선수점검의 성격이 강했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중요한 한인자인 만큼 여론의 급격한 악화는 피하지 못했다.

러시아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10명 안팎의 후보군을 놓고 새 사령탑 영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관중 국가대표감독 선임위원장은 “외국인 지도자가 온다면 대륙간섭이나 빅리그에서 우수한 경력이 있는 감독이면 좋겠다”며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성공한 한국 축구 수준에 걸맞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스웨덴 축구 대표 공격수’ 즐라탄, 잉글랜드 유니폼 입고 웹블리 가야

스웨덴 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37·LA갤럭시)가 축구의 성지인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축구를 봐야 할 것 같다.

잉글랜드의 레전드 데이비드 베컴(43)과의 내기에서 졌기 때문이다.

둘은 7일 오후 11시(한국시간)에 열린 잉글랜드-스웨덴의 2018 러시아월드컵 8강전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쾌한 설전을 벌였다. 둘 다 후배들의 승리를 장담했다.

이 과정에서 내기가 이뤄졌다. 평소 화끈한 입담을 즐기는 이브라히모비치는 베컴을 향해 “만약 잉글랜드가 이긴다면 베컴 당신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저녁을 대접하겠다. 하지만 스웨덴이

이긴다면 ‘이케이’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 사줘야 한다”고 했다.

‘이케이’는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 제작 업체다.

베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브라히모비치에게 “스웨덴이 이기면 당신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이케이에서 사주겠다”고 응했다.

그러면서 “만약 잉글랜드가 이긴다면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셔츠를 입고 잉글랜드의 경기를 봐야 한다. 하프타임 때는 피쉬앤칩스(생선튀김과 감자튀김)를 함께 먹는 영국의 대표 음식”을 먹자”고 받아쳤다.

베컴이 이겼다. 잉글랜드는 스웨덴에 2-0으로 승리. 1990 이탈리아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4강에 진출했다.

‘암벽 여제’ 김자인, 리드 월드컵 1차 대회 동메달

‘암벽 여제’ 김자인(30·스피어더코리아)이 2018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리드(Lead)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땀다.

김자인은 8일(한국시간) 스위스 빌라스에서 열린 IFSC 리드 월드컵 1차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41홀드를 잡아 3위에 올랐다.

아나 가르브레(슬로베니아)가 +44홀드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예시가 플라츠(오스트리아)가 42홀드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6일 예선에서 두 번의 등반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한 김자인은 준결승에서도 43



홀드를 기록해 6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 나선 김자인은 특유의 안정적인 등반 스타일로 +41홀드를 기록하면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김자인은 다음 주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되는 IFSC 월드컵 2차 대회에 나선다.